

투데이 칼럼

산불조심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의무

사 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 나비러스감염증-19의 기세가 꺾이나 싶더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다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방심과 안심에서 초래한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5월의 자연은 푸르기만 하다. 특히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인 장수는 사방이 온통 푸르다.

한식이 있는 4월이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산불 방지 특별 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다행히 장수에서는 올해 큰 산불이 나지는 않았고 산불방지기간도 종료될 앞두고 있다.

문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드는 이맘때쯤이면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산불이 발생



유 태 회 장수부군수

하는 원인은 건조한 산림환경보다 방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등 임야화재는 583건(산불 256건, 들불 327건)이었고 산불 원인은 논·밭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19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이 제약되면서 상대적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산과 야외로 이어지는 만큼 산불 발생 위험 또한 크다.

특히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와 예기치 못한 강풍은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평소보다 개개인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코로나 19 예방 수칙 실천은 기본이다.)

산과 인접지역에서는 취사 등 화

기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산행 시에는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을 아예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장수군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37명)를 조직·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홍보 활동과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내 고장 산림지킴이로, 산림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 단속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각 읍·면에는 산불감시원(44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불 예방은 물론 우리의 산림자원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지역의 푸른 산림,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산림 보호를 실천해주길 바란다.

사설

서울발 코로나 퇴치의 희망이 보인다

서울발 코로나가 주춤거리고 있다. 다시 퇴치의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하루 1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의 환자가 발생해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매일수룩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방역 당국이 당부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과 흉대 주점의 코로나 발병은 두고두고 교훈이 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했던 확진자의 처신도 두고두고 반면교사의 사례가 되어 마땅하다. 아무리 신분을 감추고 싶었다지만 2차는 물론이고 3차 4차 감염의 원인이 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끼친 해악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다시 말하거나 유령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을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의료진에 협조하는 정신이 부족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그렇다. 발병 사태의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도 보건 당국의 말을 전폭적으로 믿어 주지는 않고 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바 미국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하다.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계 인사들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그것은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의 발로처럼 비쳐진다. 남의 나라의 일이라지만 매우 당혹스럽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이제저래 반면 교사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뒤통 당했다. 정말이지 긴장을 늦추어서 안된다. 우리 정부의 경우도 그렇다.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다른 방역 시도와 비교해 청정 지역이라지만 그래도 안심해선 안된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방역 당국이 호소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방역 당국의 요구는 결코 힘든 것이 아니다.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끼면 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된다. 코로나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다들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정신태도를 가져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스라엘, 학교 수업 재개... 건강수칙 지켜야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모디인의 한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7일부터 학교 교실 수업을 재개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쓸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점심시간에는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하며 4~12학년은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일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실 수업이 계속 중단된 다.

이웃들에게 운동 수업하는 브라질 트레이너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브라질린지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체력 단련사 이반 아시멘토(왼쪽)가 자신의 집 옥상에서 이웃들에게 야외 운동 수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인구 28만 명이 넘는 브라질린지아 지역은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사망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북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그 많은 고민들 중 우선적인 해결 대상은 인구 감소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도가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제시와 고창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소식을 전해온 까닭이다. 우선 2021년 4월까지 국비 9천만원을 지원받아 주민 주도의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많이 반가운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그 같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프로그램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기에 하는 말인데 전북도에 물어볼 것이 있다. 인구 감소를 위하여 도민에게 약속한 것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인구 정책 투 트랙 전략을 말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를 위해 6대 분야 175개 과제를 선정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그때 1조926억 원의 예산 집행 방침을 말했기에 전에 없던 큰 규모라고 반색했었는데 말이다.

전북도 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 으려니와 지난 수년간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다. 도내 읍면동의 77%가 소멸 위기라는 진단도 있었다. 그래서 긴장감이 팽팽 해지면서 종교계 인사들이 나서기도 했었다.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더 이상 인구 감소 문제를 방치하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감을 쌓아 전북 소멸을 막자"는 다짐도 그때 있었다. 전북이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매우 낙후돼 있는 까닭에 매년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줄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 실천 과제로 효과를 내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음이 목도된 지 오래인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자리 창출과 신생아 출산 문제도 그렇다. 무엇보다도 시도를 해야 하는데 시원스런 모습을 전북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김제시와 고창군이 지원사업 대상이 됐으니 부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